

기독교대학의 이념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Arthur F. Holmes 저/박진경 역/대구:CUP 1990)

송기상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대학들 가운데서 기독교대학의 존재는 왜 필요하며, 기독교대학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기존의 기독교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새로운 기독교대학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뚜렷한 인식은 곧 기독교대학의 이념과 비기독교대학의 이념상의 차이점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독교대학 교육에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아더 홈즈(Arthur F. Holmes)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존재 이유를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하며 신앙과 문화, 신앙과 학문의 능동적인 통합(integration)을 가능케 하는 교육’에 두고 있다. 이것은 흔히 기독교대학이 신앙의 방어나 교회에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을 수행하거나 좋은 환경 아래서 학생들을 일정 기간 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뛰어넘는 매우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라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교육을 추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도록 학생들을 자극하며 개인의 삶과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안목을 계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기독교대학은 통일된 세계관에 바탕한 진정한 종합대학(university)의 의미를 갖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의 전개는 반드시 그 신학적인 기초를 요구한다. 저자는 “창조, 인간, 진리 및 문화적 사명”으로 나누어 그 신학적 기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여러 기초들이 기독교대학의 유일한 기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자의 이러한 고찰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자연의 모든 영역과 인간의 역사 및 문화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모든 자연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의존된 구조 속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되 담대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탐구하고 잠재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자칫 이원론이 갖게 되기 쉬운 신앙과 문화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타당한 반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대학이 목적하는 바는 교육을 위함이라고 할 때 과연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타락 이래로 왜곡된 자연과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이 갖는 의미를 저자는 이러한 왜곡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구속과 보존에 의하여 응답하고 개발되고 훈련되고 탐구되어야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발과 훈련 및 관리, 전인격을 교육하고 학문과 탁월성에의 추구를 장려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저자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매우 중요한 점임을 알 수 있으며, 계속된 산업화와 분업화에서 기인한 직업교육의 한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리에 대한 그의 견해, 즉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디에

서 발견되든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인식과 진리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일된다는 견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 추구를 위한 타당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문화적으로 창조 하셨음을 파악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화적 활동 가운데서 청지 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를 깨닫게 해 준다.

저자는 이 책의 전 장에 걸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 면서 교양교육을 통한 신앙과 학문에의 통합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교양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저자는 “교육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인 인격을 형성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양교육은 인격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적 당한 교육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에 따라서 교양교육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효성을 알 수 있다. 그가 기독교대학의 신학적인 기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동시에 “반성적이고 사고하는 존재”이며 “가치평가적 존재”임과 아울러 인간은 “책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일반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과 독립적으 로 사고하는 능력, 과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 미래에의 창조적인 참여 및 건전한 가치관단을 하고 동시에 영구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능 케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보다 완전하게 인간이 하나님 의 형상을 닮도록 도와주며,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는 기회를 주며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양교육은 전인격적인 성장과 동시에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력을 위한 준비로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 저자가 파악하듯이 노동이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가 지닌 특정직업의 기술 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전인격적인 면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어떠한 직업은 폭넓은 교육을 필 요로 하기도 한다. 때문에 인격적 통일성을 지닌 사고력도 있고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아는 기량이 풍부한 젊은이를 기독교대학이 키울 수 있다면 이는 곧 그러한 학생들의 대학 졸업 후의 경력에 중요한 자 산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전문화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교육을 위

하여 법률학이나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려고 계속하여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기독교대학은 보다 통합적이고 기독교적인 교양학문의 교육에 치중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매우 이상적이다. 비록 기독교대학이 미국에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의 대학이며, 미국에서는 자기의 경력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생들이 한 대학을 졸업한 뒤에 계속해서 타 대학이나 기관을 옮기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자주 눈에 띄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같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한 대학에서 받고 난 뒤에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화된 곳에서는 저자의 이러한 견해가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그가 제시한 것과 달리 기독교대학에서 얼마만큼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조화있게 하느냐 하는 것 역시, 비록 그것이 기독교대학의 이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교양교육 기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삶의 전영역 및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통해 배우는 학문과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과 학문을 병합시키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통합의 의미를 인간의 학문이 신앙을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며, 또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모든 예술과 과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한 계속해서 지속되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네 가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인 자세와 동기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태도적 접근”이 있다. 그가 예로 들었듯이 어떤 사람이 비기독교인이었을 때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의 학문하는 동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지적, 사회적, 예술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와는 그 태도가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자기가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과 경배와 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둘째, 윤리적인 접근이 있다. 윤리적인 접근이란 정의와 사랑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의 원리들에 대한 통찰력과 이러한 통찰력에 근거한 기독교 원리들을 윤리적인 논의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통합에의 윤리적인 접근은 저자가 지적한 바대로 “정의와 사랑에 관한 사실들과 가치들 사이에 존재하는 고유한 관계, 즉 결과들의 문제를 넘어선 관계들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과 가치들을 찾아내는 열쇠는 사실의 탐구(관련 학문의 검토)와 그에 관련된 중위개념(middle-level concept)의 파악(여기서는 신학과 철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및 연루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정의와 사랑으로 적절한 목적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함(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것들과 개개의 학문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역사, 철학 및 신학에 의한 기초적 접근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반성적이며 가치평가적인 사람들이 근거를 두고 행했던 이념들과 가치들의 의미를 볼 수 있으며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의 창조적이고도 구속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관한 개념들과 기본적인 가치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기독교적인 통합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에는 철학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저자의 논지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세계관적인 접근을 들고 있다. 사실 기독교와 학문 사이의 가장 포괄적인 접촉점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통일된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때,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독교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종합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세계관의 내용은 전체적이고 탐구적이며 다원론적(앞에 말한 탐구가 개방적이라면 완전한 일치는 어렵기 때문에)이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고백적이고 투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그가 말하는 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자기 전공분야 외의 다른 분야나 학문 영역에 있어서

삶과 사상의 조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려 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사물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기독교 교육에서 말씀에 대한 헌신과 탐구의 자유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라고 저자는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는 학문적 업적의 성취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교양교육에 있어서도 상상력을 신장하고 과거의 학문적인 선각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관념들과 가치들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탐구의 자유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교양교육은 학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불가결한 요구일 뿐더러 신앙을 위해서도 자유는 불가결한 것이다. 즉 저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고로 우리는 그것을 탐색하기 위하여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자유가 무책임한 허용이어서는 안되며 그렇다고 억압적인 구속이어서도 안된다. 기독교 대학은 새로운 생각들과 중요한 문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대학에서의 학문적인 자유의 한계를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자는 여기서 책임있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책임있는 자유의 의미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사고하며 진리에 대한 사랑에 바탕하여 학문을 하되 그가 속한 대학에 공표된 신앙의 틀 내에서 학문의 탐구를 수행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법 아래에서의 자유”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대학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을 저자는 잘 인식하고 있다. 즉 세속사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기독교대학을 지역교회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교회 관계자들의 또 다른 시각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같은 비난에 대한 반박으로서 신앙과 가치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중립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은 지역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비난은 결국

기독교대학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학문의 자유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학은 학생들의 학문적 추구하고 함께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왔다. 현재에 와서는 이런 점이 거의 소멸되었지만 기독교대학에서는 “부모를 대신한다”는 개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공동체 이념 속에 더 자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은 학생들에게 매사를 신앙과 결부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관점에 접근된 학습환경을 가능케 한다. 저자는 기독교대학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나친 개인주의와 지나친 행정적 규제로 보고 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지나친 개인주의는 스스로를 사회와 격리시켜서 결국은 교양교육이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적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인간의 이성적·역사적·가치평가적 본성의 제발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대학 당국의 지나친 행정적인 규제는 학문의 탐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막게 되므로 유해한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한 마디로 그 공동체의 성격이 학문 공동체인 것이다. 대학의 가장 공통된 과업은 교육이다. 물론 저자는 학생과 교수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것이 매우 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학문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이 지역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대학이 학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더욱 소망스럽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하여 저자는 기독교대학이 동시에 신앙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신앙이 학문에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학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합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의 실천은 “신앙과 학문의 분위기”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학문적 분위기의 열쇠는 교수에게 있다. 따라서 교수에게 있어서는 학문적인 자질과 열정, 그리고 교육에의 사명감 등이 요청되며 동시에 교수는 명백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는 교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또한, 경험이 교육적이기 위하여는 있는 그대로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경험이 교육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경험의 인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경험의 인간화란 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인간은 반성적 존재이며 가치 평가적이고 책임있는 행위자이므로 “이성적 행위의 경험”은 교육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가치판단의 경험도 교육적일 수 있다. 저자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질을 영적인 덕목들, 도덕적 덕목들 및 지적인 덕목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특징들인 양심적임, 순종함 등과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각적인 특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특질들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이성적이며 반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질로 볼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이념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정도의 깊이와 체계성을 지닌 책은 흔치 않다. 더러는 그 내용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대학에서 직접 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 자신의 기독교대학에의 열정과 이념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이고도 이념 자체에 그치지 않는 실제 교육경험에 바탕한 매우 유익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이 한국에서 시도되고 구현되기 위하여는 교양교육의 필요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에의 조화,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신앙과 학문에의 통합의 진정한 의미 파악 등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가 되리라 확신한다.